

광주 유일 알제리인 모함메드 전남대 연구원의 응원가



“4년전 한국 응원한 붉은 악마 이번엔 고국 알제리 응원할게요”

“기성용·손흥민에 관심 알제리가 2-1 이길 것 축구로 양국 친해졌으면”

“요즘은 축구할 때 평소보다 훨씬 즐거워요. 월드컵 덕분에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아서 그런지 컨디션도 최고네요”

매주 주말 오전이면 전남대 캠퍼스 운동장에서 ‘작은 월드컵’이 열린다.

알제리인 모함메드 파푸(30·사진)를 비롯한 모로코, 이집트, 세네갈 등 세계 각국에서 광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20여명이 모여 축구경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온 모함메드는 자신의 팀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는 실력과 축구광이다.

모함메드는 지난해 전남대에서 지구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8명의 한국 연구원과 지구물리탐사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나 알제리에서 교수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는 최근 1년여의 연구기간을 남겨놓고 고국에 빠졌다. 그동안 한국에 정이 든 탓에 한국에 더 머무르지, 고국인 알제리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광주는 제2의 고향으로 고국 알제리로 돌아가도 영원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며 “특히 한국에서 두 번째 맞는 이번 월드컵은 알제리와 한국이 같은 조에서 맞붙게 돼 더

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4년전 남아공 월드컵 때도 광주에 있었던 그는 한국을 열광적으로 응원해 ‘알제리의 붉은악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3일에는 고국인 알제리를 응원해야 하는 알맞은 운명과 마주하게 됐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실력과 축구광답게 지난 18일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 대해 “나와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 기성용과 손흥민을 유심히 지켜봤다”면서 FIFA 랭킹 등 어려서 알지 못했던 한국에는 미안하지만 알제리가 2-1로 승리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경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팀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손흥민이 골을 넣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23일 월드컵 한국-알제리전의 중계시간은 한국의 경우 새벽 4시지만, 알제리는 시차 때문에 8시간 빠른 22일 밤 8시다.

모함메드는 올 가을에 결혼할 약혼녀와 화상통화를 하며 집에서 응원을 할 생각이다. 그는 “약혼녀는 축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취미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연구실 동 앞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알제리 국기를 보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는 “이번 경기를 통해 서로 잘 알리지 않았던 양국이 더 친해지게 되기를 바란다”며 “백희준 수습기자 bhj@”

독립투사의 후예들 “뿌리 찾아 왔습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맞아 150명 모국 방문행사

광산구 고려인 마을 방문 등 4일간 광주·전남 일정

옛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50주년을 맞아 ‘독립투사의 후예’인 고려인 150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고려인 동포지원단체인 (재)고려인동기운동본부와 고려인문화산업교류협력회는 19일 “이날 오전 러시아 하바롭스크,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초청한 고려인 동포 129명이 강원 동해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에 도착해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행사 스태프까지 합하면 방문단 수는 총 150명으로, 방문단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전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현지 한국 총영사관의 환송을 받은 동포들은 동해에 도착한 뒤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환영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영선·이완구 원내대표와 추미애, 강석호 의원 등이 참석해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그간 애환과 한국을 찾은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모국 방문단 일원으로 함께

온 독립유공자 최재형·김경천·박밀양 선생 후손들이 자리해 고국을 찾은 소회를 밝혔다.

첫날 일정을 소화한 고려인 동포들은 20~22일 광주방문을 시작으로, 나주, 영암, 장흥 등 본격적인 전국 순례에 나선다.

동포들은 특히 광주에 머물며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사는 ‘또 하나의’ 고려인 동포들도 만날 예정이다.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는 439세대 759명의 고려인이 거주중이다.

동포 방문단의 첫 광주 일정은 20일 오후 기자회견 광주공장 방문으로 시작된다. 21일에는 광주 시티투어와 함께 무등산국립공원을 탐방하고, 오후 8시부터는 연해주 고려인 독립운동 아사와 이민 가족사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광주 방문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나주 국립박물관과 향교, 영암 왕인박사 기념관을 견학한 뒤 장흥 정동진 우드랜드 체험에 나서는 한편 오후 7시부터는 5·18기념관 대동홀에서 아리랑 가무단 공연과 문화교류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동포들의 이번 방문길에는 러시아 현지 언론사 기자들도 동행해 고국을 찾은 고려인 동포들의 애환을 취재하고 있다.

고려인동기운동본부 측은 “2007년, 2008년에도 러시아 연해주 동포 100여명을 초청한 바 있으며 규모만 보면 올해가 가장 크다”면서 “모국을 찾으려는 동포들이 워낙 많아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특별법 빨리 제정을...”

광주지독교연합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건보료 1.3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를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

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오르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 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

aT 해외 10개 도시 ‘한식 드림팀 베스트 11’ 조사서 1위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비빔밥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지난 13~16일 aT 지사가 있는 해외 10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683명을 대상으로 한식 세계화를 이끌 ‘한식 드림팀 베스트 11’을 조사한 결과다.

비빔밥이 1위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차지했으며, 김치와 불고기가 2, 3위로 공격수 자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들은 떡볶이, 삼겹살, 김밥, 잡채,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냉면·해물파전(공동 11위)의 순서로 한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aT 사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무대에서 활약하듯이 한식 세계화의 유망주들을 전진 배치해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2동 11-1번지

문의: 062-233-9961

www.brighteye.co.kr

NAVER **단비플라워** 농산물

단비플라워

죽자화완3단 /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추천 **특별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